"quarterly 청렴" <2017년 제3호 3/4분기)>

2017. 제3호.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

청렴韓 길로(路)

❑ 간추린 청렴소식

1 '감사관이 찾아가는 청렴교육' 진행('17.7.21)

▶ 본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원국토 전 직원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
2 청렴도 향상 실무단 회의 개최('17.9.21)

▶ 각 부서 주무계장 및 공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과제 발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3 '현장에서 청렴을 외치다' 캠페인 실시('17.7~9)

▶ 국민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대외적인 청렴의지 표출을 위해 관내 주요국도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.

❑ 해외 청렴 사례 소개

강력한 청렴정책으로 신뢰 상승, 홍콩

영국의 지배 속에서 부패했던 홍콩

- **홍콩은 1970년대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국가**
  - 영국의 식민지 시절 홍콩은 부패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국가였음
  - 이에 심각함을 느낀 홍콩 국민들은 시위를 통해 변화를 요청하였고, 영국 정부는 강력한 반부패기관인 '염정공서'를 설립하게 됨

홍콩의 강력한 반부패기구 '염정공서'

- 1974년 2월, 염정공서법, 뇌물방지법,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방지법 등 이른바 부패방지 삼륜법의 뒷받침으로 염정공서가 출범함
- 홍콩시민들의 절대적 신임과지지 하에 부패혐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하여 구금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여러 부패행위를 단속함

아시아에서 부패없는 국가 상위권 '홍콩'

- 염정공서의 활약에 따라, 홍콩은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(CPI)는 10점 만점에 8.3으로 159개국 중 15위를 기록함
- 뇌물과 부패로 원성이 심각했던 홍콩은 이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'부패 없는 국가'

❑ 행동강령 Q & A

Q&A 특혜의 배제

Q 직무수행 상대자가 지연·혈연·학연·종교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동강령 위반인지?

A 지연·혈연·학연·종교 등의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혜로 볼 수 없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.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이해를 주어야 특혜라고 볼 수 있음.

Q&A 금품 등 수수 금지

Q 수령할 수 있는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의 가격 상한선이 있는지?

A 가격 제한은 없으나 일반의 상식이나 사회 상규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물품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여야 함.

※ 일반적인 기념수건, 볼펜, 우산 등은 가능하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기념품은 받을 수 없음.

❑ 김영란법 바로 알기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

1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-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. 다만,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,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.

2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는지?

-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고, 공직자 등의 직무와 상관이 없으면 수수 가능.

❑ 청렴만화

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!
또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쳐서도 안됩니다!

❑ 청렴인물 탐방

◈ 자오 한익상 선생(1767 ~ 1846)